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14.(목) 10:30 < 12.14.(목) 석간 > 배포 2023. 12. 13.(수)

젊은 반도체 기업인과 반도체 산업 미래 논의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젊은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 열려
- 장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위해 투자·인력·기술 적극 뒷받침 의지 밝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 14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분야의 젊은 기업인들과 업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반도체 생산현장을 시찰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FRD, 기가레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모빌린트, 리벨리온 등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 반도체 팹리스·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팹리스·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이 빠르게 국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산 성능평가,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반도체 산업생태계에서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본격 운용하고, 금년 2.8조 원인 정책금융을 내년에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팹리스·소부장 기업과 반도체 칩 생산 기업, 자동차·전자 등 수요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방안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팹리스·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방문규 장관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P1 라인을 방문, 생산 공정을 시찰했다. 이후, 삼성전자 구내식당에서 경영진·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젊은 직원들의 근로·거주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확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반도체 산업으로 유입되고, 젊은 반도체 기업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유소영 (044-203-42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개요**

□ 목 적

○ **반도체 산업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 소부장/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젊은 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논의**

□ **일 시** : ’23. 12. 14일 (목), 10:30 ~ 13:00

□ **장 소**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 참석자

○ **산업부** : **장관**, 첨단산업정책관

○ **산업계** : 삼성전자, FRD, 기가레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모빌린트, 리벨리온 등

□ 세부 계획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10:30~10:32	(2’)	• **도착** 및 **방명록 작성**
10:32~10:35	(3’)	• **모두발언**
10:35~11:10	(35')	• **간담회**
11:10~11:15	(5’)	• **기념촬영**
11:15~11:50	(35’)	• **현장투어**(D램·낸드 생산라인 투어)
11:50~13:00	(70’)	• **삼성 임직원과의 간담회** (오찬 병행)